



지난 1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8회말 1사 1루에 KIA 김호령이 번트로 출루하고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호랑이 '가을 잔치' 준비

번트 등 작전 수행능력 향상·최상의 전력 유지 심혈



KIA 타이거즈가 '우승 확정'과 '가을 잔치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20일 2017시즌 KBO 포스트 시즌 경기 일정 발표됐다. KIA의 눈은 10월 24일에 맞춰져 있다. 10월 5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시작되는 포스트시즌은 24일 대망의 한국시리즈로 이어진다. 아직은 불안한 1위 KIA의 목표는 한국시리즈 직행이다.

우승 확정을 우선 목표로 잔여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을 잔치'를 위한 위닝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KIA는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된 19일부터 본격적인 번트 훈련에 나섰다. 20일에는 번트 특별 훈련이 진행돼, 김호령과 최원준이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다.

큰 무대에서는 세밀한 작전에 경기의 양상이 바뀐다. 긴장감도 높기 때문에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19일 SK와의 홈 경기에서 이와 관련해 고민해야 할 장면이 나왔다.

1회초 선발 양현종이 2사에서 최정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연속 안타를 맞으며 1실점을 했다. 이어진 1회말 KIA는 투타자 김선빈의 좌중간 2루타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김기태 감독의 선택은 번트였다. 하지만 2번 최원준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투수 땅볼로 물러났다. 김선빈은 그대로 2루에 발이 묶였고 김주찬의 잘맞은 타구는 좌익수 김동엽의 호수비에 막혔다. 믿었던 최형우는 삼진이었다. 작전 수행이 잘 됐다면 김주찬의 플라이 때 동점 주자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1회 무사 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는 4-7로 졌다.

김 감독은 20일 전날 번트 상황에 대해 "최근 최원준의 우측 타구가 안 나오고 (우리 선발이) 에이스니까 분위기 흐름을 안 뺏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승 확정과 가을 잔치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번트를 포함한 작전이 적재적소에 내려져야 하고, 작전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작전의 완성도 만큼 중요한 또 하나는 최상의 전력 유지다. KIA는 지난 17일 아찔한 경험을 했다. 홈으로 쇄도하던 2루 주자 버나디나가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절뚝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몇 년 '헬스케어'를 경험했던 KIA에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장면이었다. 다행히 병원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버나디나는 하루 선발에서 빠진 뒤 20일 3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타석에 섰다.

대신 이날 4번 타자와 좌익수 자리를 굳게 지켜왔던 최형우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괜찮다"며 자신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던 최형우지만

컨디션이 뚝 떨어지면서 결국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19일에는 안치홍이 컨디션 난조에 이어 비염 증세가 겹치면서 하루 쉬어가는 등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우승 확정과 가을 잔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됐다.

다행히 전력 플러스 요인이 있다. 왼쪽 광배근 통증으로 빠졌던 좌완 임기영이 이날 kt와의 2군 연습경기에서 1이닝을 소화했고, 발목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이명기도 본격적인 타격 훈련에 나섰다. 이명기는 22일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실전을 소화할 예정이다.

세밀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1위를 확정하고, 포스트 시즌을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KIA의 바쁜 가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가을잔치' 10월 5일 개막...24일부터 한국시리즈



KBO리그 2017 시즌 '가을 잔치'가 10월 5일 시작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일 2017 타이거뱅크 KBO 포스트시즌(PS) 경기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10월 5일 정규시즌 4위 팀과 5위 팀의 '와일드 카드 결정전'과 함께 포스트 시즌의 막이 오르며,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10월 24일 돌입한다.

정규시즌 3위 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이 맞붙는 준플레이오프(5전 3선승

제)는 10월 8일 시작된다. 역시 5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플레이오프는 10월 16일부터 치러진다.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한국시리즈는 10월 24일부터 7전 4선승제로 전개된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우천 등으로 연기될 경우 다음날로 순연되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사이에 최소 1일을 이동일로 한다. 경기가 순연돼도 정해진 일정에 영향을 없을 때는 예정된 일정대로 경기가 진행된다.

포스트시즌 연장전은 15회까지이며, 무승부가 나올 경우 해당 경기는 각 시리즈별 최종전이 끝난 후 무승부가 발생한 구

장에서 이동일 없이 연전으로 치른다.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의 구단이 홈팀이 되며, 한 시리즈에서 2경기 이상 무승부가 나올 경우 1일의 이동일을 두고 연전으로 진행한다.

경기는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한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도 포스트 시즌 수익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KBO 정규시즌 우승팀에게 20% 공제 후 한국시리즈 우승팀에게는 종전과 동일하게 50%를 지급하고, 준우승 팀은 25%에서 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은 15%에서 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은 10%에서 9%로 각각 조정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에게 3%의 수익금을 분배한다. /김여울기자 wool@

## 시구 김국영 "100m 출발할 때 보다 빨라"

덕아웃 T 특독

▲출발선에 섰을 때보다 더 빨라요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20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한국 육상 100m 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광주시청)이 20일 KIA와 SK의 경기 시구자로 나섰다. KIA 투수 박진태의 지도 속에 시구 연습을 한 김국영은 "광주시청 동료들이 야구장에 왔다. '그래도 선수인데 마운드 앞에서 던지거나 바닥에 던지는 것은 아니지?'라며 부담을 줬다. 생각보다 어렵다. 큰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김국영은 마운드에서 홈 플레이트까지 한 번에 공을 던지고 내려왔다. 김국영은 "격정보다 잘 던진 것 같다. 100m 출발선에 서었을 때보다 더 빨랐다. 처음 마운드에 서보는 것이라서 떨렸다. 경기장 분위기도 좋고 팬들도 열성적이어서 선수들 힘이 많이 날 것 같다"며 KIA의 통합 우승을 기원했다. 또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김국영은 "앞으로 기록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체전 4관왕을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MVP에도 도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 20일 SK와의 경기에서 앞서 외야에서 훈련을 소화한 임기영, 훈련이 끝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던 임기영이 펴고 기게 앞에서 번트 모션을 취하며 장난을 쳤다. "확장시절에 타격 실력이 어땠느냐?"는 질문을 받은 임기영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라고 답했다. 깜짝 놀랄 임기영의 성적은 1안타 1홈런이었다. 임기영은 2학년 때 안타를 딱 하나 쳤다. 9번 타자였다"고 웃었다.

▲출루 1개? 안타 3개? = "출루를 쳐주라"는 임기영의 핀잔에 버나디나가 유쾌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훈련이 끝나고 덕아웃으로 온 임기영이 버나디나와 마주했다. 임기영은 버나디나에게 "왜 내 경기에서 출루를 쳐주지 않느냐. 홈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SK의 경기에서 육상 100m 한국신기록(10초07) 보유자인 광주시청의 김국영이 시구자로 나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런을 쳐줬으면 8승을 했을 것이다"고 큰 소리를 쳤다. "등판 경기에 분명 홈런을 쳐줬다. 다시 확인해보라"던 버나디나는 "알았어. 쳐주겠다. 홈런 1개 또는 안타 3개에서 골라보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한편 버나디나의 '출루' 기억이 맞았다. 버나디나는 임기영이 완봉승을 거뒀던 6월 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하나도 아닌 두 개의 홈런을 날렸다. 버나디나는 이날 연타석 홈런과 함께 4타점을 올리며 임기영의 7-0 승리에 수훈 선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

## KIA 심동섭 8월 MVP 선정

KIA타이거즈 투수 심동섭이 광주시구단이 선정하고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8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심동섭은 8월 9경기에서 구원 및 선발 투수로 등판해 13.2이닝 동안 11개의 탈삼진을 곁들이며 1승(1패) 평균자책점 2.63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다.

특히 5년여 만에 선발 투수로 등판했던 지난 8월 30일 대구 삼성전에서 5이닝 무실점 완벽투로 팀 승리를 이끌며, 자신의 첫 선발승을 거두기도 했다.

19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시상식을 가진 심동섭은 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영 백수연

## 광주, 전국체전 13위 목표



10월 20일 중북 충주서 개막

30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대비해 광주체육회가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생명중심 충북에서, 세계중심 한국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0일부터 보름여간 중북 충주일원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는 육상, 수영 등 45개 종목에 1344명이 출전할 계획이다.

광주체육회는 이번 체전에서 종합 13위(2만9000점 이상)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충주에서 개최된 시·도 대표자들이 모여 실시한 대진추첨에서 광주는 지난해 2585점에서 580점 감소한 2005점을 기본점수로 획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기본점수는 낮지만 입상 예상 종목이 지난해보다 많아 선수들의 당일 경기력 및 집중도에 따라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체육회는 농구(남·여, 고, 여), 배

수영·태권도·사격 등 45개 종목 1344명 출전

김국영 육상 100m 신기록·4관왕·MVP 도전

드볼(남고), 럭비(남고), 검도(남대·남일), 하키(남고), 배드민턴(여고) 등 1~2회전 접전 종목(탁)에서 추가로 점수를 획득한다면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록종목에서는 육상, 근대5종, 수중? 핀수영, 사격 종목이 전년보다 전력이 상승해 고득점 획득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육상과 수중·핀수영은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신기록까지 예상하고 있어 추가 가산점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 유도, 씨름 등 개인대진종목에서도 1~2회전 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점수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기록 수립과 연패 행진을 이어나갈 선수와 팀도 있다. 먼저 김국영(광주시청)의 신기록 수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육상 간판인 김국영은 이번 체전에서 100m 종목에서 대회 신기록과 3연패 도전을 위해 맹훈련 중이다

는 세단뛰기에서 6연패와 5연패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유도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은 -70kg급에서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지난 타이베이U대회와 부다페스트세계선수권에서의 부진을 보였지만 이번 체전에서는 그간의 설욕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영 백수연(광주시체육회)도 평영 200m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3연패에 도전한다. 여자 소프트볼의 명진고는 전국체전 4연패에 도전한다.

여자스쿼시팀(광주체육회) 또한 대회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광주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체전이 D-30에 들어가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며 "특히 부상선수가 발생하지 않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광주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



유도 김성연

## 류현진, PS 선발 탈락...불펜 오디션 앞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결국 포스트시즌(PS) 선발 경쟁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 20일 '다저스는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에게 포스트시즌 구원투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기회를 준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규시즌에서 대부분 선발투수를 맡은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는 사실상 '좌천'을 당한 셈이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이날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는 남은 정규시즌 2주간 포스트시즌 불펜 오디션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저스는 PS에서 '지구 최강 투수'로 평가받는 클레이턴 커쇼와 29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영입한 일본인 투수 다르빗수 유로 1~2선발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어 알렉스 우드, 리치 힐이 3~4선발을 차지한다. /연합뉴스

좌완인 류현진은 올 시즌 23경기(22경기 선발)에 등판해 5승 7패, 평균자책점 3.46을 거뒀다. 후반기에는 9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36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지만, 포스트시즌에서 탄탄한 선발 로테이션을 비집고 들어가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올해 5월 2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경기에서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이래 처음으로 불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당시 그는 6-3으로 앞선 6회 초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2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바리크 첫 세이브를 챙겼다.

LA 타임스는 "류현진은 호기심의 대상"이라며 "올스타 휴식기 이후 9경기에 선발 등판해 평균자책점 2.36을 기록했지만, 경기를 지배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썼다.